

# 질높은 테마여행 안내서가 필요하다

대부분 유명 관광코스의 기초정보 일색... 각종 예술기행서들이 안내서 구실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늘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대중화되면서 여행 형태에도 '양질진화의 법칙'이 적용, 최근에는 종래의 '무작정 떠나고 보자' 식의 여행을 지양하고 문학기행, 예술기행 등 이른바 주제가 있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행락과 여행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많은 도시를 정해진 관광코스에 의해 따라다니기만 하던 우리의 여행 문화에 새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이러한 '주제가 있는 여행'은 해외 각처에서 떨쳤던 '어글리 코리아'의 불명예를 거두어 들인다는 점에서도, 올바른 여행문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분명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을 부추기고, 선도하며, 안내해줄 여행 안내서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

## 본격적인 안내서는 드문 실정

물론 해외여행 정보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많은 해외여행 정보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서점에는 아예 특설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지는 그야말로 유명 관광코스의 기초적인 정보를 소개한 안내책자가 대부분이며 그것도 일본 등 외국 책을 베낀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다. 보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나름의 주제에 의거해 질높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최근 선보인 《MUSIUM GUIDE》(김지현, 엘까미노)는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정보지와 차별성을 갖는다.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등 우리 여행자들이 자주 찾는 유럽의 6대 미술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술관의 위치와 개폐관시간, 휴일요금 등을 다룬 '미술관의 개괄', '미술관 소사', '미술관 감상법', '미술관 배치도'를 두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미술관을 알뜰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고, 미술관내 편의시설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빼놓지 않았다. 각 미술관의 사진과 저자가 직접 그린 배치도, 소장 그림들이 컬러 화보로 함께 수록되어 효과를 더했다. 20여차례나 되는 해외여행 경험을 가진 전문 여행가인 저자의 경험과 꼼꼼한 자료에 의해 정보지로서의 정확성도 돋보이는 이 책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테마여행 안내서라 할 수 있다.

16 출판저널

## 대부분의 여행 정보서는

유명 관광코스의 기초적인 정보를

소개한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나름의

주제에 따라 질높은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고급 안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화가나 문인들에 의한 문화나

예술기행들이 테마여행 안내서의

구실을 대신하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안내서의 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먼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문도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로 화가나 문인들이 쓴 문화기행, 예술기행, 문학기행들도 여럿 나와 있다.

서울대 법대 최종교 교수의 《나의 서양문화기행》(웅진출판)은 '新서유견문'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세기 전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둘러본 도시들을 1세기 후의 법학자가 다시 알아보는 여정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끝낸 세번의 세계여행의 기록을 3권의 책으로 엮어 낸 미당 서정주의 《미당의 세계방랑기》(민예당)는 세계 어느 곳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여행했다는 데서 우선 눈길을 끈다. 오대양 육대주에 걸쳐 인간을 찾아 헤맨 시인의 여정이, 시공을 초월한 자유인의 정신과 격조높은 생애의 안목이 살아 숨쉬는 시적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유럽쪽의 예술기행을 다룬 《설렘과 황홀의 순간》을 펴냈던 김윤식 교수가 최근 내놓은 《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술)은 일본을 주로 한 문학기행이다.

일본을 통해서 본 한국의 예술과 일본과 한국작가들의 치열한 고뇌와 사상을 저자 특유의 섬세함으로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작은 예술품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깊은 애정과 날카로운 직관력, 풍부한 문학적 지식을 아울러 풍요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자의 기행문의 특색.

동양사상의 본질을 나타낸 정·중·동(靜·中·動) 세련으로 엮은 《최일단 발바닥 문화예술기행》은 중국과 그 주변의 소수민족



본격적인 테마여행 안내서를 대신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행서들.

들의 생활문화와 예술을 둘러본 기록이다. 재미 화가인 저자의 거침없는 과감함과 버스표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섬세함과 꼼꼼함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이 책은 다른 여행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느끼게 한다. 정해진 코스가 아닌 드러나지 않은 뒷골목이나 궁춘을 찾아들어난 화가의 눈에 포착된 풍경과 생활문화, 이름없는 민초들의 생활물품에 스며 있는 예술성들을 어김없이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다. 저자의 여행 스케치와 현지 예술품을 소개한 '최일단 컬렉션'의 화보도 좋은 볼거리다.

## 예술가들의 여행기도 좋은 안내서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문인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았던 곳이 중국이다. 중국을 다녀온 문인들의 기록을 모아서 펴낸 책도 있다. 《우리시대의 중국문학기행》(현대문학)이 그것으로 김윤식, 김병익, 조정래, 윤후명 등 9명의 문인들의 여행기를 통해 중국의 땅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백두산을 둘러본 소감을 들을 수 있고, 윤후명의 흔적을 찾는 여행도 함께 할 수 있게 기획됐다.

재일 한국인 서경식씨의 《나의 서양미술 순례》(창작과비평)도 미술작품 감상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저자가 서양의 여러 미술관,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접했던 미술작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평이하고 유려한 문체로 자유분방하게 써내려간 이 책은 당시 조국의 감옥에 갇힌 형들을 둔 한 재일 한국인의 역사 의식이 시대와 공간을 달리한 미술작품들과 어떻게 교감하는가를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나의 지극한 과학여행》(정일남, 국제)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저자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 여러나라들의 과학·지리·문화를 살피고 쓴 글들이어서 이채롭다.

'주제가 있는 여행'에 대한 관심은 언론에서 먼저 시작된 듯하다. 《명저의 고향》(윤중국 외 지음, 비룡소) 동아일보 연중 기획시리즈였던 '명저의 고향'을 엮은 것으로 목민심서·삼국유사 등 국내저서 27권과 자본론·돈키호테 등 외국저서 27권의 현장탐방과 관련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한 여행기이다.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정진홍 지음, 집문당)은 문화일보 창간기획특집으로 마련된 것으로 타이티, 뉴질랜드, 피지 등 세계 13개국의 종교문화를 살핀 것으로, 요즘 성행하는 성지순례와는 다른, 종교학적 문화비평적 관점에서의 종교문화순례기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예술작품이나 문화유산을 그저 주마간산식으로 훑어보고는 사진찍기나 쇼팽에 열중하는 우리의 해외여행 풍속도가 안타깝기만 했다는 여행가 김지현씨(엘까미노 발행인)는 "보다 질높은 여행문화를 선도하는 데는 좋은 정보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정보지는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화보, 재미있고 알찬 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일러준다.〈박남정〉